

행복한 금요 편지

은사님께 드리는 편지

서원동¹⁾

월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존경하는 정방래 은사님!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면서도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교단 위에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던 젊고 자상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50년이 다되어가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은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지요. 담임을 맡아 저희 앞에 오신 은사님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자. 호랑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고양이도 될 수 있다."며 큰 꿈을 갖으라고 하셨지요.

대학 졸업 후 곧장 저희 학교에 부임하셨던 총각선생님은 젊은 열정을 쏟아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고, 국어 담당 선생님이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은사님은 저희 반은 물론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셨지요.

더욱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고 예의바른 학생, 나라를 생각하는 학생,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학생이 되라고 가르치셨기에 어린 저희들은 큰 감화를 받았으며, 저희 반은 학교에서 모범반으로 평가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회갑을 지나 지난날을 돌아보니, 은사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너무 컸음을 깨닫게 되고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눈물지으며 학교에 다니던 저는 은사님을 만나 변하기 시작했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청소년기에, 훌륭한 은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서원동 대표님은 현재 월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직임하고 계시며, 전 한일합성그룹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미션스쿨이라 대부분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지만 신실한 집사님이셨던 은사님은 조회와 총례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고, 또 바쁘신 가운데도 2개월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제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격려를 해주셨지요.

특히,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 방황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요.

사랑하는 은사님!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3학년 때도 담임을 맡으시어 2년 동안 계속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2년간 은사님의 사랑 속에 공부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중학시절 맺어진 은사님과의 인연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것에 저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중학교와 동일 학원이던 고교에 진학해 같은 교정을 사용했기에 고교시절에도 저는 은사님을 종종 찾아뵐 수 있었고 계속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 때문에 저는 중·고교 시절에 은사님을 만났던 것이야말로 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방래 은사님! 가르침에 힘입어 저는 고교와 대학을 잘 마치게 되었고 격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은사님의 기대처럼 훌륭한 사람은 못되었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며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사님께 보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모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뒤에도 교회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지내시던 은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제 앞가림만 신경쓰다보니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못한 제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2016. 5월 스승의 날에

제자 서 원 동 올림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